



홍 세 권  
방재시험연구원장

## 보 · 람 · 찬 · 계 · 절

연구원 대지에 낙엽이 뒹굴며 바람결에 흩어진다. 연록의 생명 샘을 분출했던 옥외시험장(운동장)의 잔디가 어느덧 누렇게 물들었다. 세월이 이처럼 빠르던가?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품고 그러나 부담스러운 목표를 안고 출발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무심코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게 하는 때이다.

지난 5월 2일 우리 연구원은 『방재시험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및 교육관 준공식』을 성대히 치렀다. 교육관 준공에 맞추느라 본래 생일(4월 11일)보다 좀 늦춰지기는 했지만 화창한 날씨와 200여 명의 축하객, 그리고 멋진 방재교육시설 등 우리의 성년 잔치가 커다란 축복 가운데 치러졌음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어서 지난 8월 2일에는 우리 협회 13대 이사장으로 부임한 제정무 이사장께서 우리 연구원을 처음 순시하셨다. 협회의 새로운 지도자를 맞을 때마다 늘 기대에 부풀는 우리들. 세계적인 화재시험연구기관을 향한 우리 연구원의 열정과 비전의 실현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실 줄 굳게 믿으며 그를 환영하였다.

우리 연구원의 또 다른 기쁨은 최신 시험장비의 확보이다. 대형열관류시험기, 콘칼로리미터, 그리고 가스유해성시험기가 도입되어 이미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내년부터 국제수준(ISO)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대형 창호의 KS인증기준에 따른 단열성능시험 등 열관류시험을 우리 연구원이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3월 산업자원부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본격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새로운 콘칼로리미터와 가스유해성시험기의 설치로 ISO기준에 의한 건축물 내

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의 쾌거는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다. 지난 9월 「울진 1, 2호기 화재위험성평가」 연구 프로젝트에 우리 연구원이 선정되어 지금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무난히 해낼 수 있는 국내 연구기관은 손꼽을 정도이다. 우리 연구원의 기술수준이 한층 돋보이는 자랑스러운 메달이다.

봄, 여름, 가을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는 달려왔다. 그 달음질의 기록은 무엇보다도 실적이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에 아랑곳없이 지금 우리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남은 기간 마지막 스파트를 해야만 우리의 금년 수입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이다.

수입신장과 기술개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엔지니어로서 또한 기업인으로서 크게 성공한 어떤 분이 쓴 글을 최근 신문지상에서 본적이 있다. “적당한 스트레스와 휴식이 우리의 삶에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마음 먹기에 인생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자세, 몸가짐을 의미하는 ATTITUDE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 연구원을 세계적인 화재안전시험연구원으로 기필코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계절, 허무보다는 보람과 결실이 우리 가슴을 따뜻하고 뿌듯하게 한다.